

공자의 군자론

장 의 성(목사, 전남 고흥중앙교회)

서론

일전에 김수환 추기경이 도올(陶柳) 강의에 나왔다 한다. 도올은 그 자리에서 자기는 잘 해 보려고 하는데 왜 사람들이 자기를 질타하는지 모르겠다고 푸념섞인 하소연을 하였다 한다. 아닌게 아니라 기독교내 개신교 교계 신학자들은 물론 모(某) 주부 필자의 안티(anti)도올 발언은 도에 지나치지 않을까 싶을 만큼 강도가 심한 것 같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김 추기경의 대답은 간단 명료했다. “이순(耳順)이 안되어서 그런 거 아니요?” 아뿔싸!!! 과연 김수환 추기경이다. 논어 강의로 장안의 화제 거리가 된 도올로서는 이 순간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꼴이 아니었을까 싶다. 논어를 아무리 잘 풀이하면 무엇을 하는가? 유명세를 타는 만큼 적을 많이 사서 마음 고생이 심하다면. 모르는 해도 도올 나이도 이제는 60 세 일터인데 육십(六十)이면 이순을 해야 논어를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지만 일 도올이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의 말에 대해 이순이 안되면 아직 공부 가 덜 된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논어는 이론이 아니라 실천이다.

행동이 실천되지 않는 논어 강의는 공염불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논어 전체를 아무리 달달 외어도 단 한가지를 실천하는 것만 못하다. 우리 민족은 이미 조선조 500년 동안, 논어를 경전으로 삼고 밤낮 공자왈 맹자왈 하고 살아 온 민족이다. 그러나 유교 500년의 역사는 무엇을 남겼는가? 그 지긋지긋한 당쟁으로 나라를 피폐케 한 장본인이 조선유학이 아니라고 누가 부인하겠는가? 오죽하면 몇 년 전 갑골문자를 연구한 소장 중문학자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고 해서 신선한 충격을 주지 않았던가? 그런데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는 책이 베스트 셀러가 된지 불과 일년만에 도올의 논어 강의로 공자가 복권되고 있으니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는 헛갈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공자를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필자는 왜곡된 공자는 죽어야 하고 진정한 공자는 살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면 진정한 공자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은 공자가 일평생 추구해 온 이상적 인간상인 ‘군자(君子)’의 회복에 달려 있다. 공자가 말한 군자야말로 논어라는 코드(code)를 풀어 낼 키워드(key word)이다. 논어를 꿰뚫고 있는 중심 사상은 군자라는 한마디에 압축되어 있으며 군자야말로 공자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 이제 공자가 이상적 인간상이라고 본 군자는 과연 어떤 인물인가 보도록 하자.

본론

논어에는 군자에 대한 공자의 어록이 많이 산재(散在)해 있다. 그런데 군자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논어 전반부보다는 후반부에 더 많이 등장하고 있다. 그 중에 우선 군자에 대한 공자의 견해를 소인(小人)과 대비시킨 구절을 몇 가지만 골라 본다. 공자는 군자를 소인과 대칭되는 인물로 묘사하여 여러 곳에서 군자와 소인을 비교한다. 즉 공자는 인간을 두 부류로 구분하는데 군자와 소인이란 두 가지 유형으로 제시한다. 그러면 군자는 어떤 사람이고 소인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이인 16장에 나오는 것으로 “군자 유어의 소인 유어리(君子 喻於義 小人 喻於利)”한다는 공자의 말씀이다. 군자란 모름지기 어떤 일을 할 때 무엇이 의로운지를 먼저 생각하고(喻는 깨우칠 유, 알려 줄 유로 여기서는 좋아할 유로 어조사 어와 함께 의를 좋아한다는 뜻이 된다) 소인이란 먼저 이익을 생각한다는 내용인데 군자를 단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20여 년 전 그러니까 20대 초반 필자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의 감격이 지금도 생생하다. 나는 저런 말씀이 성경 외에도 나온다는데 솔직히 신기하고 놀랐다. 나는 그 당시 성경에만 좋은 말씀이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었던 모양이다. 그러다 이방인인 공자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한 사실을 알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예수님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군자는 ‘유어의’라는 공자의 말과 예수님의 말씀과 과연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의(義)에 대한 강조는 예수님과 공자가 일치하고 있다. 이것은 기독교와 유교의 접착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는 위공영 20장에 나오는 “군자 구제기 소인 구제인(君子 求諸己 小人 求諸人)”한다는 말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소인은 모든 것을 남의 탓으로 돌리고 군자는 자기 책임으로 여긴다는 말씀이다. 실제 우리 주변을 보면(나를 포함해서) 걸핏하면 남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이 많은데 다 소인들의 행태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몽땅 자기 자신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군자 구제기(君子 求諸己)의 자세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는 상대방한테 책임 전가에 급급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모세를 원망하기에 바빴는데 다 소인 구제인(小人 求諸人)의 전형적 모습이다.

세 번째는 “군자 화이부동 소인 동이불화(君子 和而不同 小人 同而不和)”한다는 자로(子路) 23장의 말씀이다. 논어를 읽다 보면 공자는 언어의 마술사란 생각이 들 정도로 언어의 유희가 절묘하다. 화(和)와 동(同)이란 두 글자만을 조합하여 군자와

소인의 특징을 대칭적으로 크로즈업시키는 솜씨는 과히 일품이다. 화이부동이란 무엇인가? 서로 다르지만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반면에 동이불화는 서로 같아야만 직성이 풀리고 서로 같아야만 단결이 되는 폐쇄성을 말한다. 동이불화의 문화에서는 서로 개성이 다른 존재들이 팀웍을 형성하기가 어렵다. 획일은 있어도 통일은 어려운 것이 동이불화의 집단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왜 동문이나 동향, 종친회 등 학벌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파벌의식이 심한지 그 이유를 밝혀 준다. 다 화이부동을 하지 못하고 동이불화에 익숙한 소인배적 근성 때문이다. 여기에 이익을 우선하는 유어리(喻於利)가 합세하여 집단이기주의로써 학벌주의, 지역주의, 혈연주의라는 당파심이 만연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통일한국을 위해서는 화이부동의 군자 교육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러운 것은 교회조차 화이부동을 하지 못해 교파 난립을 일삼고 있으니 가슴 답답할 뿐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에 불을 지르러 왔다는 말씀은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다.

네 번째로 “군자 상달 소인 하달 (君子上達 小人下達)” 한다는 말인데(헌문 24장) 이는 군자는 자꾸 위를 향해 상승 발전하고 소인은 자꾸 밑으로 퇴보 타락한다는 뜻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군자는 의를 사모하기에 위를 바라보고 살고 소인은 이익에 급급하기에 밤낮 땅만 생각하여 타락하게 된다.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처럼 위엣 것을 생각하면 상달하고 땅엣 것을 생각하면 하달하게 될 것이다. 이 비슷한 말은 이인 11장에 나오는 “군자 회덕 소인 회토(君子懷德 小人懷土)” 한다는 말씀이다. 이 말은 군자는 늘 덕을 생각하고 소인은 항상 땅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군자의 관심은 오직 덕에 있지 땅이 아니라는 말씀이다.

그러면 군자의 덕이란 어떤 것일까? 헌문 30장과 자한 28장에 보면 “인자 불우 지자 불감 용자 불구(仁者不憂 知者不惑 勇者不懼)” 라는 말이 나온다. 너그러운 사람은 근심하지 않고 지혜로운 사람은 미혹되지 않으며 용감한 사람은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말인데 공자가 생각하는 삼주덕은 인애(Love), 지혜(Wisdom), 용기(Courage)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위영공 17장에 보면 군자는 의로써 바탕을 삼고(君子義以爲質) 예로써 행하고(禮以行之) 공손한 태도로 나타내고(孫以出之) 신의로써 이루어야만(信以成之) 군자라고 말한다. 그래서 나중에 공자의 교단은 덕의 목록에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 다섯 가지 덕목, 오상(五常)을 꼽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의 더 중한 바 핵심을 의, 인, 신(義, 仁, 信)으로 요약한 것과 좋은 비교가 된다(마 23:23 참조). 이것은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율법이 몽학(蒙學) 선생 노릇한 것처럼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공자가 대신했음을 뜻한다. 그러므로 공자를 이방인을 위한 선지자로 간주해도 좋을 것이다.

다섯째, 군자의 가장 큰 특징은 말보다 행동으로 실천하는데 있다. 공자는 일찍이 군자란 무엇인가에 대해 “선행기언 이후종지(先行其言 而後從之)”로 진단했다(위정 13장). 군자란 무슨 말을 내뱉었으면 먼저 그것을 실행하고 그 다음 말을 한다면서 말에 대한 강한 책임감을 요구했다. 그래서 군자는 말이 행동에 앞서서 짓을 부끄럽게 여기며(恥其言而過其行-헌문 29장) 군자는 말은 느리고 행동은 민첩하기를 원한다(欲訥於言而敏於行-이인 24장)고 하였다. 이 역시 말보다 행동을 강조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일치한다. 예수님은 당시 바리새인들이 말만 하고 행동을 하지 않음을 보고 저희 말은 그대로 따르고 행동은 본받지 말라고 당부하셨다(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저희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 마23:3). 공자가 말과 행동이 다를 수 있음을 경계한 것은 다음의 말에서도 잘 나타난다. “군자 불이언거인 불이인폐언(君子 不以言擧人 不以人廢言)”이라 하였는데(위영공 22장) 이는 말이 좋다고 해서 사람을 천거하지 말고 사람이 잘못됐다고 그 사람의 말까지 쓸데없는 것으로 여기지 말라는 뜻이다.

이 외에도 군자가 지켜야 할 세 가지(三戒)가 있고(계씨 7

장) 두려워해야 할 세 가지(三畏)가 있으며(계씨 8장) 생각해야 할 아홉 가지(九思)가 있다(계씨 10장). 그중 삼계를 보면 색, 투, 득(色, 鬪, 得)으로 불가(佛家)에서 말하는 탐, 진, 치(貪, 嗔, 痴), 삼독(三毒)과 깊은 관계가 있다. 즉 물질을 더 많이 득(得)하고자 함은 탐(貪)심이요 다투고(鬪) 싸우는 것은 분을 참지 못함(嗔)이요 원조교제와 같은 여색(色)에 빠지는 것은 치정(痴) 때문이다. 갈라디아 5장에 보면 이런 삼독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 갈 수 없다고 선언한다(갈 5:19-21 참조).

결론

이처럼 논어에는 공자가 이상적인 인간상으로 생각한 군자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런데 공자왈 맹자왈 하던 조선 유학은 과연 얼마나 군자를 길러내는데 성공했는가? 당쟁의 역사를 보면 좁스런 문제를 가지고 죽기 살기로 싸운 것이 조선 500년 유학의 역사다. 대표적으로 조선 말기에 있었던 예송(禮訟) 논쟁이다. 임금인 아들, 효종이 죽었을 때 어머니인 대왕대비, 자의대비는 상복을 몇 년간 입어야 하는가, 3년인가 아니면 1년 인가로 치열한 논쟁을 벌이더니(1660년) 이번에는 왕비인 며느리, 효종의 장씨가 죽자 대비, 어머니인 자의대비가 상복을 얼마나 입어야 하는가로 2차 논쟁이 벌어졌다(1674년). 그 결과 1년 상을 주장하는 측과 9개월을 주장하는 측이 팽팽하게 대결하였고 그때마다 지는 쪽은 귀양살이를 해야 했다. 1차 전에서는 송시열이 승리하여 윤선도가 귀양을 가더니 2차 전에서는 송시열이 패배하여 관직을 박탈당하고 말았다.

임진왜란(1592년)과 병자호란(1636년)이란 국치를 겪고도 정신을 못 차리고 예론 논쟁을 벌이더니 국력이 소진될 대로 탈진되어 결국 경술국치(庚戌國恥)를 당한 조선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유교의 공과(功過)를 냉정하게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공자의 부활이 이런 식의 유교의 복원이라면 공자는 백

번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러나 과연 공자가 강조한 것이 상복을 1년 입느냐 3년 입느냐, 아니면 9개월 입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상적인 인간으로서 군자의 도래에 있다면 공자는 유효하고 살아 마땅하다.

그러면 공자가 말한 군자는 누구인가? 공자는 자기 자신조차 군자라고 감히 말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는 군자의 도를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였노라고 겸손하게 말하였다. 헌문 30장에 보면 군자에게는 세 가지 도가 있는데(君子道者三) 자기는 실천하지 못하였다고 한다(我無能焉). 물론 공자의 제자들은 스승이 겸손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공자는 다른 곳에서도 자신은 군자의 도를 실천하지 못한다고 고백한다(술이 32장 참조). 그렇다면 유학(儒學)에서 성현으로 받드는 공자 자신조차 이상으로 여기는 군자라는 인물은 과연 누구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대망이다. 공자는 자기 후대에 이상적인 인간, 군자의 도래를 바라는 소망을 간절히 피력한 적이 있다. 자한 22장에 보면 “후생가의 언지래자지불여금야(後生可畏 焉知來者之不如今也)”란 말이 나온다. 이 말은 뒤에 태어나는 사람이 두려우니 앞으로 올 자가 지금의 나보다 못하지 않으리라고 누가 아느냐는 예언적 고백이다. 이 후생(後生)에 래자(來者), 곧 나중에 올 자가 과연 누구인가? 그는 곧 이상적 인간, 그리스도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별칭이 인자(人子) 곧 사람의 아들이라는 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사람과 하나님이 교차되고 있다. 이것은 사람의 아들인 인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셨다는 말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공자가 꿈에도 그리던 군자, 곧 임금의 아들이다. 하나님은 임금중의 임금이기에 임금의 아들, 군자는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기에 공자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이상적 인간상은 바로 그리스도임이 밝혀진다. 공자가 꿈꾸던 이상적 인간, 군자는 그리스도안에서 성육신 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는가!